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김소아(Kim, So A)¹⁾

강민주(Kang, Min Ju)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280 middle school students and 287 high school students in Gyung Gi Province,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 school students exhibited higher scores on depression than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Second,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level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motional self-disclosure. Thir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levels, while emotional self-disclos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only. In both age groups,

* 이 논문은 2012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mj kang@yonsei.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Key Words : 인지적 정서조절(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정서적 자기개방(emotional self-disclosure),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우울(depression).

I. 서 론

청소년 학교 폭력, 성적 비관, 비행, 자살 등의 기사가 하루를 마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별 현황 집계라는 주제 하에 실시된 조사에서는(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a) 조사 결과가 공개된 2004년 이래로 가정, 비행, 학업,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해왔다고 보고되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 고난과 역경은 있게 마련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 동안의 어떤 시점에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에 진입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인물이자,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Hall은 갈등과 정서혼란으로 가득 찬 격변기이자 ‘질풍노도(storm and stress)’의 시기라고 청소년에 대해 특징지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비취지는 청소년의 모습들, 이들 사이에 하루를 마다하고 터지는 사건들은 청소년기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인지 보여준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서적 취약성과 불안정이며,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정서적 문제 중 하나가 우울이다(Chung, 1998). 실제로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

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여부를 의미하는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32.8%의 중·고등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b). 심각성의 정도가 덜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의 청소년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우울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생각(Anthony & Christianne, 2006; Chun, 2001; Woo, Park, & Jeong, 2010),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스트레스(Caldwell, Zimmerman, Bernat, Sellers, & Norato, 2002) 등 여러 부분에서 꼬리를 물며 악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Kim & Cho, 2000)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크게 우울의 예측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뉜다(Kim & Kim, 2006). 먼저, 환경적 요인 중 청소년 우울과 관련하여 살펴야 할 것으로 부모-자녀관계를 들 수 있다. 양육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박탈감은 청소년 우울의 원인 및 증상 발현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되며(Ahn & Shin, 2012). Horowitz와 Garber(2006)가 아동 및 청소년 우울의 32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메타 분석을 한 결과, 부모행동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ic Korea(2012) 조사 결과, 전국 15세~19세의 청소년 44.7%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에 있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인 가정, 그 안의 부모의 양육 행동을 살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행동은 수용과 통제 차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유형론적(typological) 접근에 근거하여 자녀의 발달적인 측면과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유형론적 접근으로는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각 차원과 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고(Darling & Steinberg, 1993), 그 중 통제차원은 훈육, 강압, 죄의식 유발, 감독, 처벌, 애정 철회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 하에, 다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되었다(Barber, 2002).

그 중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언어적 혹은 감정표현을 제재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겠다는 심리적 협박을 의미한다(Barber, 1996). 이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는 행동적 통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Barber, 1996), 개인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것이자,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hn, 2010). 행동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기도 하는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발달, 그 중 내면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된다(Barber, 2002; Stoltz et al., 2005). 이는 청소년 우울이라는 내면화 문제에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헬리콥터 부모’가 의미

하는 바와 같이 성장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는 부모가 많고,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하에 놓일 위험이 크다. 특히나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율의 욕구가 강한 시기이자,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기에 가해지는 심리적 통제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우울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며, 양육적 돌봄의 주체로 어머니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Ahn & Shin,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반드시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모든 스트레스 상황이 언제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Felsten, 2004). 이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해석, 대처 방식 등의 개인적 특성과 개인차를 모두 고려했을 때 보다 정확하게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 우울은 슬픈 감정 등의 우울한 정서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심리적 문제로(Kwon, 2003)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된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Gross(1999)는 정서조절이 인간 기능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중심이라고 보았으며, Fredrickson(1998)은 건강한 적응이 긍정적인 정서를 즐기는 것에서 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지각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견딜 것인가에서도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조절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이어지는 부적응을 예방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Cicchetti et al., 1995). 따라서, 정서조절은 청소년 우울에 있어

서도 중요한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지적 정서조절’은 이러한 정서조절을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전략으로 정의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적 정서조절이란 개념은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들이 의식적·무의식적, 생물학적·인지적·행동적인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서조절의 인지적 차원이 다른 차원과 구분되어 연구된 적이 없어 인지 과정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하에 제시되었다. 또한 Garnefski 외(2001)는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등의 5가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반추, 자기 비난 등의 4가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로 이를 구분하면서, 인지적 정서조절 과정이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이나 후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조절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 과정은 개인의 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지적 정서조절이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는 결과 또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Garnefski et al., 2001; 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 van den Kommer, 2004; Han & Park, 2011; Jung & Kim, 2011; Shin & Chae, 2011). 그러나 기존 연구 중, 임상적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며 주로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의 적응적·부적응적 측면 중 어떠한 면이 우울을 설명하는지 혹은 그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서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한 또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개방을 들 수 있다. 자기개방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Jourard와 Lasakow(1985)는 이를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이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개인의 개별적 특성(trait)을 의미한다면, 자기개방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개방은 노출되는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는데 특히 경험 정보에 대해 느낀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표현이 가장 의미 있는 자기개방이며, 이는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실적 정보의 개방보다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Kim & Oh, 1997). 이와 관련한 것이 ‘정서적 자기개방(Emotional self-disclosure)’으로, 정서적 경험이 쓰인 글, 혹은 말로 표현됨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게 되는 정서적 표현의 언어적 형태를 의미한다(Kennedy-Moore & Watson, 2001). Jourard와 Lasakow(1958)는 감정을 드러내는 자기개방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겪게 되므로 자기개방이 정신건강의 근원이자 지표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기개방과 반대로 자기억제가 강하게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된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4). 따라서 합리적인 표출이라 할 수 있는 정서적 자기개방은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자기개방 중에서도, 부정적 정서의 개방이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욕구불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합리적으로 표출하지 못하였을 때 개인은 갖가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4),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은폐하려는 경향이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된다(Larson & Chastain, 1990). 그러나 자기개방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상담현장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거나, 본인의 정보를 개방할 대상을 특정인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자기개방의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자기개방과 우울간의 관계는 국외에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뿐이며 국내에서도 연구된 바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 특히, 정서적 불쾌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정서적 자기개방이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그리고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과 정서적 자기개방은 우울이라는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이 가진 정서조절 수준이 주어지는 심리적 통제라는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정서적 자기개방은 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포함하며,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정서조절이라는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학생 시기에는 정서의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 정서를 표출하며 초조감 및 불안이 주요 특징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등학생

시기는 불안정한 정서 표출은 감소하지만 이전보다 정서가 더욱 강렬해져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모두 강하게 경험하는 시기이다(Han, 2004). 즉, 중·고등학생 모두가 발달시기상 같은 청소년기에 분류되지만 완전한 동일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각 변인의 수준 차이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우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서적 자기개방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고등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각 연령집단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변인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6개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280명과 고등학교 2학년 287명의 총 567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중학교 2학년 중 남학생은 148명 여학생은 132명이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중 남학생은 148명 여학생은 139명이었다. 중·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의 기복이 뚜렷하여 우울 등의 정서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시기이며, 특히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Jung, Sohn, Yang, & Jung, 2000, 재인용).

2. 연구 도구

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역학연구센터-우울증 척도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현재의 우울 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이며, 임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Radloff, 1977).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on, Choi, & Yang(2001)이 구성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중·고등학생의 우울을 측정하였다.

한국판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문항이 제시하는 내용과 같이 느끼거나 행동했는가에 대한 20문항의 질문에 대해 '1일 미만으로 극히 드물게(0점)'에서 '5~7일 사이로 거의 대부분(3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4점 Likert 척도다. 문항 예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우울했다.' 등이 있으며, 총점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우울척도 총점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의 청소년용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 PCS-YSR)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직접 보고하는 설문이며, 통제로 인한 감정들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으로써 자기 지각을 통한 측정이 가장 타당하다는 근거 하에(Barber, 1996)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Barber(1996)의 PCS-YSR은 자기표현 제한(예. 어머니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막으신다), 감정 불인정(예.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비난(예.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리신다), 죄책감 유발(예.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어머니를 걱정시킬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애정철회(예. 내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나에게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및 불안정한 감정기복(예. 어머니는 내게 잘 해주시다가도 화를 낼 때가 있으시다)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3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통제 총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인지적 정서조절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2001)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 CERQ)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로 나뉘는 자기 보고식 척도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및 조망확대의 5가지 하위요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및 과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9가지 하위요인은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총점의 점수 범위는 각각 20점에서 100점,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조절의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91과 .83이었다.

4) 정서적 자기개방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정서적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해 Kahn과 Hessling(2001)이 개발한 심리적 불편감 노출 척도(Distress Disclose Index : DDI)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5점 Likert의 자기 보고식 척도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는 대개 내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 놓는다.’ 등이 있으며, 총점의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였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하는 설문에 제시된 문항의 이해 정도, 소요시간, 질문지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20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였다. 총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고, 응답자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는 질문지의 몇 가지 문항의 문장 구성을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검토와 대략적인 소요시간 등을 파악한 뒤,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질문지 620부를 전량 회수하였고, 무응답 문항들이 있어 분석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53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56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변인별 점수 범위와 문항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령에 따른 변인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 간 상호작용효과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중·고등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원점수의 곱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다중공성선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각 변수에서 평균치를 빼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생성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Seo, 2010).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서적 자기개방 수준 모두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의 경우에는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모든 변인은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학생($t_{(278)} = -1.42, p < .05$)과 고등학생($t_{(285)} = -.73, p < .05$) 모두의 경우, 남녀 간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심리적 통제간의 상관관계는 .30이하로 높지 않았고 공차한

III. 결과분석

1. 측정 변인의 연령차

중·고등학생의 우울,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중·고등학생 간 우울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우울 점수가 중학생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_{(565)} = -2.66, p < .01$).

<Table 1> Independent t-test on the study variables : Mean differences by age groups

	8th graders ($n = 280$)	11th graders ($n = 287$)	t
	Mean of items (SD)	Mean of items (SD)	
Depression	1.14(0.83)	1.26(0.77)	-2.66**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44(0.67)	1.40(0.73)	1.35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98(0.94)	2.96(0.74)	0.35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03(0.76)	2.08(0.68)	-1.86
Emotional self-disclosure	3.29(0.79)	3.38(0.64)	-1.46

** $p < .01$.

계는 .91에서 .99사이로 .10을 넘는 수치이며, 분산팽창요인은 1.01에서 1.10사이로 10보다 이하로 나타나,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른 변수 투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정서조절은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정서적 불쾌함을 다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인의 특성이며, 정서적 자기개방은 인지적 정서조절과는 달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상대와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있어 근본적인 개인의 특성인 인지적 정서조절,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자기개방 순으로 변수를 투입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양육 행동 및 신념과 관련된 패턴으로 청소년 개

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먼저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적 요인을 바탕으로 환경적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있어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의 개인적 요인을 먼저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 한 후,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투입하였다. 분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의 경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 단계의 회귀식이 유의하였으며($F_{(1,278)} = 30.63,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우울의 변량을 10%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01$). 그러나 2 단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의 F 변화량은 유의하지 못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on predicting 8th graders' depression

	8th graders ($n = 280$)			
	Step 1 β	Step 2 β	Step 3 β	Step 4 β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32***	.30***	.26***	.26***
Emotional self-disclosure		-.08	-.08	-.10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9***	.33***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0***
R^2	.10	.11	.19	.22
Changes in R^2		.01	.08	.04
F	30.63***	16.42***	21.18***	19.75***
Changes in F		2.09	27.56***	12.75***

*** $p < .001$.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on predicting 11th graders' depression

	11th graders ($n = 287$)			
	Step 1 β	Step 2 β	Step 3 β	Step 4 β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36***	.37***	.28***	.25***
Emotional self-disclosure		-.14*	-.12*	-.13*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8***	.23***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5*
R^2	.13	.15	.22	.24
Changes in R^2		.02	.07	.02
F	42.42***	24.73***	26.51***	21.74***
Changes in F		6.26*	25.76***	6.00*

* $p < .05$. *** $p < .001$.

하였다.

마지막으로 3 단계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F_{(3,276)} = 21.18, p < .001$). 새롭게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우울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9, p < .001$),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 단계와 비교해 8% 증가하여 총 1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분석을 고등학생에게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우울의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1 단계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1,285)} = 42.42,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고등학생 우울의 분산을 13%를 설명했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했다($\beta = .36, p < .001$). 2 단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정서적 자기개방을 함께 투입한 결과, 회

귀식이 유의하였고($F_{(2,284)} = 24.73, p < .001$), 설명력은 2% 증가하여 고등학생 우울의 분산을 15%를 설명하였다. 3 단계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확인되었다($F_{(3,283)} = 26.51,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또한 고등학생의 우울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8, p < .001$),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 단계와 비교해 7% 증가하여 총 2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대해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s 2와 3 참조).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들 간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84~.99, 분산팽창요

인은 1.00~1.40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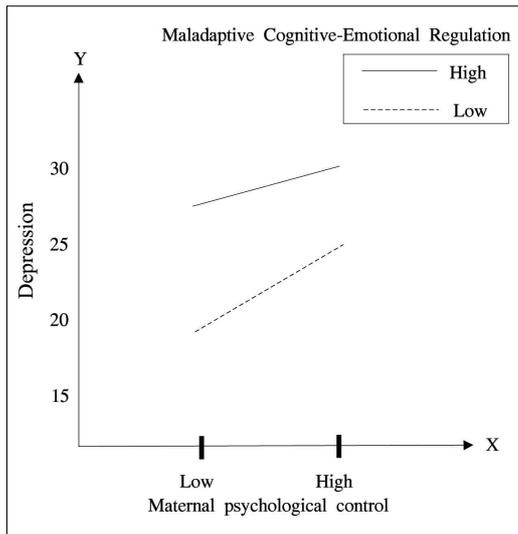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된 상호작용 항은 중학생의 우울의 분산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 p < .001$).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 단계에 비해 4%가 증가했으며 총 22%의 설명력 가졌다. 종합했을 때, 중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중학생 개인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었다.

동일한 분석을 고등학생에게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4단계 회귀식이 유의했다($F_{(4, 282)} = 21.74, p < .001$). 새롭게 투입된 상호작용항이 고등학생의 우울의 분산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5,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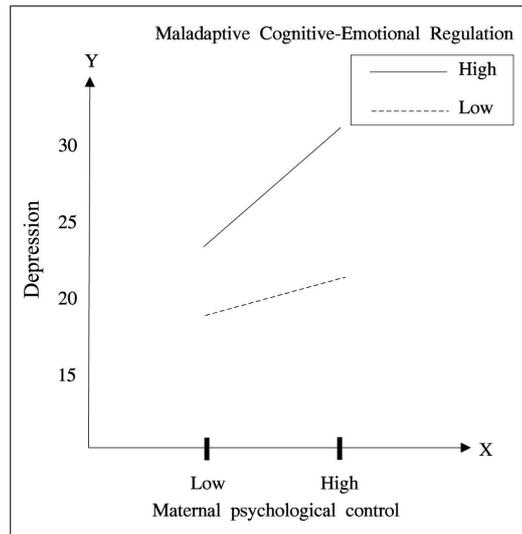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 단계와 비교하여 2%증가해 총 24%의 설명력을 가졌다. 종합했을 때, 고등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심리적 통제,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항이었다.

3.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 상호작용효과의 사후검증

회귀분석에서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1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변인이 연속적일 경우는 회귀분석 결과만을 통해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평균값으로부터 ±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각각 상·하 수준으로 간주하여 상호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8th graders' depression



<Figure 2> Interaction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11th graders' depression

작용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Aiken & West, 1996), 연속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시각화 하였다.

Figure 1을 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 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2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 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고등학생 5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우울,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은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 연령차를 살핀 결과 우울

수준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보다 이후 고등학교시기에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더 높고(Jung, Sohn, Yang, & Jung, 2000, 재인용),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게되는 혼란스러움과 불안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Peterson(1988)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 비교 없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만을 살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유사한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고등학생 두 집단 간의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정서 조절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Ko & Ko, 2009) 주장과는 다소 다르나, 이를 조절 능력에 대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각종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특정 사건으로 기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취약하다고 보고된다(Chung, 1998). 더욱이 개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력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불쾌한 정서에 대한 적응적인 인지적 처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등학생 두 집단 간 정서적 자기개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두 연령의 정서

적 자기개방만을 측정하여 비교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자기개방의 연령별 차이와 수준의 높고 낮음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정서개방 수준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통제는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개방은 고등학생의 우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중·고등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arnefski et al., 2001; Garnefski et al., 2004; Han & Park, 2011; Jung & Kim, 2011; Shin & Chae, 2011). 인지적 정서조절 과정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된다. 그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불쾌한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 본인과 타인을 비난하거나 유발된 부정적 느낌과 사고에 대해 반추하고 사건의 끔찍한 면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Garnefski et al., 2001), 불쾌한 정서가 유발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불쾌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정서적 자기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은

우울한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서는 외부에 노출되기보다 내부에 숨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정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이상행동의 유발을 높이며, 합리적인 정서표출이 어려울 경우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Han, 2004). 따라서 정서적 불쾌감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정서적 자기개방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정서적 자기개방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두 집단 간의 정서적 자기개방과 우울이 동일한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 정서적 자기개방은 고등학생의 우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정서적 자기개방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 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정서조절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다른 관련 요인들이 이미 우울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지 않을 때 자녀의 표현을 제재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것으로(Barber, 2002), 본 연구 결과는 일종의 심리적 협박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는 가정이라는 공간, 그 안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드는 시점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여전히 수 있다는 점, 동시에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부모 요

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있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더라도 청소년 개인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낮으면 우울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낮더라도 개인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높으면 우울함을 상대적으로 더 느낀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라는 부모 변인이 청소년 우울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인지적 정서조절이라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이 보호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환경적 요인 혹은 개인적 요인만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해하고 증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그 중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우울감이라는 정서에 있어 입학, 졸업, 상급 학교 준비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연령간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변인의 수준, 변인 간 관계 및 영향력에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학년의 청소년들을 함께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령별 비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빈약하게 이루어진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간의 관계,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정서적 자기개방과 우울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에 포함된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누어 연령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는 제시된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연령에 따른 비교를 파악하기에 충분히 근거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우울에 대해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울을 비롯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정서조절 능력 및 자기개방을 비롯한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종합했을 때, 중·고등학생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육자인 부모가 심리적 통제의 위험성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리적 통제는 부모 스스로 지각하기 어려운 양육 패턴이기 때문에 타자인 전문가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과 더불어 정서적 자기개방 수준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접근한다면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M. H. (2010).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sense of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691-710.
- Ahn, M. H. & Shin, H. S. (201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depression : A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227-253.
- Aiken, L. S., & West, S. G. (1996).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 Sage.
- Anthony, S., & Christianne, E. S. (2006).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 237-26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ldwell, C. H., Zimmerman, M. A., Bernat, D. H., Sellers, R. M., & Norato, P. (2002). Racial identity, mater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1336.
- Cicchetti, D., Ackerman, B. P., & Izard, C. E.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logy. *Development and Psychology, 7*, 1-10.
- Chon, K. K., Cho,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hun, Y. J. (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151-167.
- Chung, O. B. (1998).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velopment*. Seoul : Hakjisa.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Erikson, E. K.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W. W. Norton.
- Felsten, G. (2004). Stress reactivity and vulnerability to depressed mood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789-800.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1311-1327.
- Garnefski, N., Teerds, J., Kraaij, V., Legerstee, J., & van den Kommer, T. (200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267-276.
-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 Past, present, future. *Cognitive and Emotion, 13*(5), 551-573.
- Han, J. Y., & Park, K.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cognitive coping strategies

-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9), 169-188.
- Han, S. C. (2004). Studies of adolescence : Understanding and guiding adolescents. Seoul : Hakjisa.
- Horowitz, J. L., & Garber, J. (2006).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401-415.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1), 91-98.
- Jung, J. Y., & Kim, J. N. (2011).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227-254.
- Jung, M. S., Sohn, Y. S., Yang, H. Y., & Jung, H. H.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Seoul : Sigmappress.
- Kahn, J. H., & Hessling, R. M. (2001). Measuring the tendency to conceal versus disclose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41-65.
- Kennedy-Moore, E., & Watson, J. C. (2001). How and when does emotional expression help?.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8-212.
- Kim, B. M., & Oh, O. H. (1997). Relation of counselor self-disclosure & client trait-anxiety in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6, 1-14.
- Kim, B. N., & Cho, S. C. (2000). Treatment strategies for the child &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11(3), 216-231.
- Kim, S. H., & Kim, C. K. (2006). Depression in adolescence : Pa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and cognitive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6), 249-261.
- Ko, S. K., & Ko, Y. K. (2009).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older adults compared with younger adul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9(2), 65-85.
- Kwon, S. M. (2003). *Modern Abnormal Psychology*. Seoul : Hakjisa.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a). *Book of adolescents and statistical analyses of adolescent counseling by Korean youth counseling institute*.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b). *Online survey on adolescents' health status*.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4). *Adolescent Psychology*. Seoul : Kyoyookbook.
- Peterso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

-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47-1168.
- Shin, A. Y., & Chae, J. H. (2011).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patient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1), 1147-1168.
- Statistics Korea (2012). *2012 Youth Statistic*. Seoul : Statistics Korea.
- Stoltz, H., Barber, B. K., & Olsen, J.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026-1092.
- Woo, C. Y., Park, A. C., & Jeong, H. H.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human relations,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by genders and level of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19-38.

2013년 6월 30일 투고, 2013년 10월 4일 수정
2013년 10월 14일 채택